

세계 남자골프 스타, 제주에

국내에서 처음 열리는 PGA 정규대회 '더 CJ컵@나인브릿지스' 19일 개최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2016~2017 시즌 5승과 함께 '올해의 선수'에 빛나는 저스틴 토마스(미국), 전 세계랭킹 1위 제이슨 데이(호주), 페덱스컵 플레이오프 3차전 'BMW 챔피언십' 우승자 마크 레시먼(호주) 등 세계 남자골프를 뒤흔들고 제주에 모여든다.

오는 19일부터 나흘간 제주 서귀포에 있는 '클럽 나인브릿지스'(파72·7196야드)에서 열리는 '더 CJ컵@나인브릿지스'는 한국에서 처음 열리는 PGA 정규대회다.

2015년 인천에서 열린 남자골프 대항전인 '프레지던트컵'이 미국팀과 인터내셔널팀이 명예를 건 상징적인 대결이었다면 이번에는 총상금 925만 달러, 한화로 약 105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상금을 걸고 세계 톱랭커 선수들과 국내 선수 78명이 스타대결을 펼친다.

대회는 주최하는 CJ그룹은 국내에서 처음 열리는 PGA 투어 대회지만 최고의 대회로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숨기지 않았다.

우선 총상금 925만 달러는 PGA 투어 대회 중에서도 삼금 규모만 놓고 보면 특급 대회 수준이다.

PGA 투어 정규 대회 상금규모가 보통 600만~700만 달러다.

상금 1000만 달러 이상인 메이저 대회와 월드골프챔피언십(WGC) 일부 대회를 제외하면 최고 수준이다.

◇'올해의 선수' 스윙 직접 볼 기회
출전 선수도 화려하다. 지난 시즌 메이저대회 PGA 챔피언십 우승과 함께 5승을 거두고 페덱스컵 포인트 1위를 차지한 토마스가 대표적이다.

세계랭킹 4위 토마스는 지난 시즌 PGA 투어를 뜨겁게 달궜다.

'CIMB 클래식'에서 2연패에 성공한 뒤 전년도 우승자들만이 출전하는 왕중왕전에서 정상에 올랐다.

이어 '소니 오픈'에서는 '꿈의 69타'를 기록하며 주목 받았고, 시즌 마지막 메이저대회인 'PGA 챔피언십'을 거머쥐었다.

페덱스컵 플레이오프에서는 2차전 '델 테크놀로지스 챔피언십'에서 우승하는 등 최종 1위에 올라 1000만 달러의 보너스와 함께 '올해의 선수'에 선정되는 등 최고의 한 해를 보냈다.

전 세계랭킹 1위이자 투어 통산 10승의 데이는 이번 대회를 통해 추락한 자존심을 세울 수 있는 계기로 삼으려 한다.

2015년 5승, 2016년 3승을 거뒀던 데이는 지난 시즌 'AT&T 바이런 넬슨'에서 준우승 1차례에 그쳤다.



정상급 선수로 발돋움한 이래 최악의 성적이다.

페덱스컵 플레이오프 최종전 '투어 챔피언십' 우승자 잔더 셔펠레(미국)와 3차전 'BMW 챔피언십' 정상에 오른 레시먼 등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는 선수들은 물론, 팻 페레즈와 다니엘 버거(미국) 등 지난 시즌 우승자 가운데 20명 이상이 CJ컵 무대에 선다.

◇'꿈의 무대' 직행 티켓 잡아라

이번 대회에는 총 16명의 한국 선수들이 세계적인 선수들과 기량을 겨룬다. 제5의 메이저라 불리는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우승자 김시우(22·CJ대한통운)를 비롯해 '한형' 최경주(47·SK텔레콤), 강성훈(31), 배상문(30), 안병훈(26·CJ대한통운), 김민휘(25) 등 이미 PGA 투어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은 일찌감치 출전을 확정했다.

PGA 투어 시드가 없는 나머지 10명은 각기 다른 방법으로 출전권을 손에 넣었다.

황중곤(25·혼마)은 'KPGA 선수권' 정상에 오르며 가장 먼저 출전권을 획득했다.

이어 '제네시스 챔피언십' 우승자 김승혁(31), 제네시스 포인트 랭킹 1~3위 최진호(33·현대제철), 이형준(25·JDX), 이정환(26·PXG)이 꿈의 무대에 설 기회를 잡았다.

아시안 투어와 유러피언 투어 강자 송영환(26·신한금융그룹), 김경태(31·신한금융그룹), 왕정훈(22·CSE)을 비롯해 '전국중고등학교 골프대회' 우승자 아마추어 이규민(16) 등도 출전한다.

대회 출전만으로도 영광스럽지만 이

들의 목표는 우승을 통해 PGA 투어 직행 티켓을 손에 쥐는 것이다.

이번 대회에서 우승할 경우 2년간 PGA 투어 시드가 주어진다. '지옥의 레이스'라 불리는 PGA 2부 투어인 웹닷컴 투어를 거치지 않고 '꿈의 무대'에 직행할 수 있다.

◇PGA투어 '아시아 스윙' 완성

그 동안 한국에서 PGA 투어 이벤트가 열린 적은 있지만 정규투어는 처음이다.

2004년 제주 중문 골프장에서 PGA 투어 공인 대회인 '신한코리아골프챔피언십'이 한 차례 열렸다.

이후 2010년 챔피언십(시니어)투어 '포스코건설송도챔피언십'에 이어 2015년 대륙 대항전 '프레지던트컵'이 인천 잭 니클라우스 골프장에서 치러졌다.

CJ컵은 아시아에서 개최되는 3번째 정규 투어다.

아시아에서 개최되는 PGA 정규 투어는 'CIMB 클래식(말레이시아)'과 월드골프챔피언십(WGC)이 주관하는 'HSBC 챔피언십(중국 상하이)' 뿐이었다.

PGA 정규 투어 개최로 국가브랜드 제고와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PGA 투어는 세계 220여개국에 중계되면서 골프장은 물론 관련 산업, 개최지역 관광 랜드마크 및 국가문화까지 전 세계로 전파된다.

PGA 투어 사무국은 이번 대회 개최로 미디어 노출과 광고효과 등을 포함해 경제적 파급효과가 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뉴시스

'2017년 대한민국 스포츠영웅' 차범근 전 감독 선정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홍)는 '2017년 대한민국 스포츠영웅'으로 분데스리가의 전설로 불리며 아시아축구 역사상 최고의 선수로 평가받고 있는 차범근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64)을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11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제2차 스포츠영웅 선정위원회를 열고 7명의 최종후보자들을 심의한 결과, 선정위원회 정성평가와 국민지도도 정량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로 평가 받은 차범근 전 감독을 선정했다.

차범근 전 감독은 축구 국가대표 A매치 최다출장(136경기)과 최다골(59골) 기록을 갖고 있다.

서독 분데스리가에서 활약하며 308경기 98득점(1978~1989), FA컵 27경기 출전과 13득점이라는 업적도 남겼다. 1979~1980년과 1987~1988년 두 차례 UEFA컵 우승 주역으로 한국 스포츠의 위상을 세계에 알린



점 역시 높이 평가받았다.

은퇴 후에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프로축구팀 감독, 유소년선수 양성, 체육행정가로 왕성하게 활동하

/뉴시스

며 대한민국 축구 선진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지난 1975년 체육훈장 기린장과 1979년 체육훈장 백마장을 수상한 공적도 평가 받아 올해의 스포츠영웅 수상자로 선정했다.

대한체육회는 스포츠영웅 선정을 위해 지난 7월부터 약 한 달간 일반 국민, 추천단(45명), 체육단체(92명), 대한체육회 출입기자(30명)를 대상으로 70명의 후보자를 추천 받았다.

이후 스포츠영웅선정위원회와 중앙인문사 체육부장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2차 심사를 거쳐 최종후보자 7명을 선정했다.

최종후보자를 대상으로 3주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지도도를 조사하고, 선정위원회가 국내스포츠 발전 공헌도, 국위선양 공헌도 등 정성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했다.

박세리, '2018 UL인터내셔널 크라운' 명예조직위원장 위촉

미국여자프로골프 협회(LPGA)와 세계 골프 명예의 전당 회원인 여자골프 살아 있는 전설 박세리(40)가 내년 한국에서 열리는 'UL 인터내셔널 크라운' 대회 명예조직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세계 8개국 최고의 여성골프 선수들이 참가하는 국가 대항전인 제3회 UL 인터내셔널 크라운 대회는 2018년 10월 4일부터 7일까지 인천 송도 잭 니클라우스 골프클럽 코리아에서 열린다.

LPGA 투어에서 25승을 거둔 후 지난해 은퇴한 박세리가 한국에서 열리는 이 대회 명예조직위원장을 맡게 됐다.

명예조직위원장에 선정된 박세리는 "2018년 UL 인터내셔널 크라운의 명예조직위원장이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이렇게 흥미롭고 큰 대회의 일부분으로 함께한다는 것은 내게 매우 특별한 일이며, 이 대회를 통해 앞으로 한국에서 훌륭한 대회가 더 많이 열리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세리는 1998년 LPGA 투어에 데뷔해 투키 시즌 메이저 대회인 '맥도날드 LPGA 챔피언십'과 'US 여자오픈'에서 2승을 거뒀다.

특히 20을 플레이오프를 치르며 우승을 차지한 US 여자오픈은 한국 언론팀이 선정한 '한국 스포츠 60년 사상 최고의 명장면' 3위에 오르기도 했다.

이 대회 이후 수많은 '세리 키즈'에 영감을 주며 대한민국 여자골프가 세

계 최강으로 발돋움 하는데 기여했다. 메이저 통산 5승을 거둔 박세리는 2006년 맥도날드 LPGA 챔피언십에서 마지막 메이저 정상에 오른 뒤 이듬해인 2007년 LPGA와 세계골프 명예의 전당에 입성했다.

'UL 인터내셔널 크라운'은 국가별 세계랭킹 기준 8개국 대표선수 4명씩 출전해 총 32명이 불꽃 튀는 대결을 펼친다. 2014년 미국 메릴랜드주 케이브스 밸리 골프클럽에서 개최된 1회 대회 때는 스페인팀이 최종일 4개의 싱글 매치에서 모두 승리하며 초대 챔피언에 등극했다.

지난해에는 크리스티 커, 스테이시 루이스, 제리니 필라 및 렉시 톰슨 등 최강의 라인업으로 구성된 미국팀이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뉴시스

워너원, 3개월 만에 컴백... 11월13일 '1-1=0' 발매

올 여름을 뜨겁게 달궜던 그룹 '워너원'이 3개월 만에 컴백한다.

16일 워너원 매니지먼트사 YMC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워너원은 오는 11월 13일 새 앨범 '1-1=0(나시 위드아웃 유·Nothing without you)'를 발매한다.

앨범 발매에 앞서 이날 티저 영상을 통해 '너의 숨결 하나 하나 놓치고 싶지 않아'라는 신곡의 노랫말이 공개됐다.

YMC는 "청량미 가득한 남자다움을 표현했던 데뷔앨범과 달리 이번 앨범에는 한층 깊어진 워너원 멤버들의 눈빛과 서정적인 분위기를 만날 수 있다"고 예고했다.

워너원은 올해 상반기 신드롬을 일으킨 음악채널 엠넷 '프로듀스 101' 시즌2를 통해 결성됐다. 지난 8월7일 첫 앨범을 발매한 이래 각종 음악 방송에서 1위를 거머쥐었다.

데뷔 앨범임에도 70만장이 넘게 팔렸다.

워너원 외에 '프로듀스 101' 시즌2 출연자들 역시 가요계에서 활동하며 인기 불이 중이다.

이 프로그램으로 데뷔 5년 만에 주목 받은 5인 그룹 '뉴이스트'의 유닛 '뉴이스트 W', 같은 프로그램 출신 연습생들의 소속사가 연합해서 탄생시킨 '레인즈(RAINZ)'와 'JBJ'다.

/뉴시스

구독·광고문의 288-9700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호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